대한민국, 대전환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
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(全매체) 2014년 10월 30일(목) 10: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.smba.go.kr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• 중기청 기업혁신지원과, 중견기업정책과
  – 과 장 나성화 (042-481-6830)
  – 서기관 이순배 (042-481-6811)
  – 사무관 이철희 (042-481-6832)

•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
  – 과 장 오승철 (044-203-4230)
  – 사무관 강진영 (044-203-4206)

정부, 『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』 발표

–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기준 마련,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통합 운영 –

1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·기준 정립

① 세계시장 지배력	• 세계시장 점유율 1~3위 (HSK 10단위)
② 중간규모 기업군	• 일정 규모*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 * 매출 1백억원 (3년 평균)
③ 집중적 연구개발	• 매출액대비 R&D 비중 2%이상 (3년 평균)
④ 글로벌화 지향성	•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%이상 (3년 평균)
⑤ 인재육성 친화도	•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업종평균 이상
⑥ 독자적 성장기반	•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% 미만

2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체계 정비

○ 히든챔피언 관련 정부사업*을 통합, **글로벌 성장단계를 고려한 2단계 지원체계** (① 글로벌 도약 → ② 글로벌 성장)로 재편

* 글로벌 강소기업, 월드클래스300 (이상 중기청), 글로벌 전문기업 (산업부)

3 기술혁신·수출·인력 등 핵심역량 기반 확충

○ **세계적 기술력과 품질**을 갖출 수 있도록 **R&D·수출마케팅** 지원 프로그램 **고도화,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인력매칭 지원**

4 민관합동 히든챔피언 정책협의체 구축, 기관간 연계·조정 강화

□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**“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”**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.

○ 정부는 10월 30일 개최된 **제35차 경제관계장관회의**에서 **『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』을 발표**하고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.

□ 이번 대책은 히든챔피언으로 불리는 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**이 **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역할**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,

○ 기업 규모에 기초한 “중소→중견→대기업”이라는 기업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“글로벌 경쟁력”이라는 질적 지표를 통해 **히든챔피언을 중소·중견기업의 바람직한 성장 롤 모델로 제시**하고,

○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일환**으로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**히든챔피언 지원시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·조정**하여 **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**을 두고 있다.

대책 수립배경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경제의 ‘우등생’으로 부상한 **독일 경제의 성공**은 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탄탄한데서 비롯**되었다.

□ 반면 **우리 경제**는 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, 수출 의존형 성장구조 등으로 인해 고용 없는 **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기**에 직면해 있다.

□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**세계 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이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**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가야 하며,

○ 이러한 취지에서, 우리경제 실정에 맞는 **‘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’의 개념 및 기준**과,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들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**을 마련하게 되었다.

1.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및 현황

1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·기준 정립

○ 독일 경영학자 **헤르만 지몬이 제시한 '히든챔피언'** 기준*은 지나친 **단순화와 일반화**로 인해 **실제 객관적 측정이 곤란**하여,

*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 기준: ① 세계시장 점유율 1~3위 또는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, ② 매출액 50억유로 이하, ③ 대중인지도가 낮아야 함

○ **국내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 경제의 특수성**을 고려한 **대안적 개념과 기준**을 다음과 같이 마련

◇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란 "**세계시장을 지배 (시장점유율 1~3위)**하면서, **집중적 연구개발 (혁신성)**과 **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(글로벌 지향성)** 등을 특징으로 하는, **독자적 성장기반 (독립성)**을 갖춘 **중소·중견기업**"

핵심 개념	판단기준 (안)
① 세계시장 지배력	• 세계시장 점유율 1~3위 (HSK 10단위)
② 중간규모 기업군	• 일정 규모*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 * 매출 1백억원 (3년 평균)
③ 집중적 연구개발	• 매출액대비 R&D 비중 2%이상 (3년 평균)
④ 글로벌화 지향성	•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%이상 (3년 평균)
⑤ 인재육성 친화도	•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업종평균 이상
⑥ 독자적 성장기반	•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% 미만

※「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협의체」 등을 통해, 구체적 판단기준·방법을 최종 확정

2 한국형 히든챔피언 현황 : 63개사

○ 세계일류상품기업 (326개)과 외감 기업 공시정보 (6.9만개)를 바탕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(①~④)을 적용한 결과, 현재 **한국형 히든챔피언이라 불릴 수 있는 기업은 63개사**로 나타남

* ⑤ 인재육성 친화도, ⑥ 독자 성장기반 조건은 기업 제출자료를 통해 추후 검증

○ 독일 경제규모 (우리나라 GDP의 3배)를 감안하더라도, **히든챔피언 기업 수는 20배 이상**의 격차 (獨 1,307개 ≫ 韓 63개)가 존재하며,

○ **매출액 대비 수출·R&D 비중은 독일 기업 수준과 비슷**하나, 매출, 고용, 업력 등의 **규모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**

독일 vs 한국의 히든챔피언 비교



3 국내 히든챔피언의 취약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

○ **독일 히든챔피언의 경쟁력**은 **200여년의 산업화 역사**를 통해 축적된 경영혁신과 숙련인력, 유기적인 산학연 협동체제,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상승 작용한 **지속적·누적적 혁신**의 산물인데 반해,

○ 우리나라는 지난 **반세기 동안 정부주도의 산업화**를 통해 **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이라는 비약적 혁신**을 경험하여 **중소·중견기업 내부에 축적된 핵심역량이 부족**한 것으로 분석

- 특히, 독일에 비해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**산학연 협력 체계가 취약**하고, **대기업과 중소·중견기업간의 격차**가 커서 우수한 인재가 대기업으로만 쏠리는 **인력 수급 불균형** 등이 구조적 문제점

- 또한 최근 정책기관들이 히든챔피언을 표방한 유사시책을 각각 내 놓아 **시책 간 통합적 조정·연계가 부족**한 것도 개선 필요

○ 결국, 히든챔피언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,

- 제조업 혁신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,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등 **기업생태계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적 정책노력**과 함께,

- 히든챔피언 지원시책들의 정책 효과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**단기적 처방**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

◇ 이번 대책에서는 히든 챔피언 지원시책들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**단기적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**하였음

2. 히든챔피언 후보기업* 지원체계 정비

※ 글로벌 강소기업, 월드클래스300 (이상 중기청), 글로벌 전문기업 (산업부) 등 **"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에 선정 된 기업"**을 의미

□ 우선, **히든챔피언 육성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**을 내년부터 **「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」**으로 **'통합공고'**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임

통합공고 대상 사업 운영 현황 ('14년 기준)

글로벌 강소기업 (중기청)	① 수출 500만불~5,000만불 중소기업 ② 기술성(45%), 마케팅(30%), 경영·관리(20%) 등 평가	* 380개 (중소)
월드클래스 300 (중기청)	① 매출 400억원(소프트웨어 분야 100억원)~1조원 기업 ② 최근 3년 평균 R&D투자비중 2%이상이거나,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%이상 중소·중견기업	* 156개 - 중소 : 54개 - 중견 : 102개
글로벌 전문기업 (산업부)	① 최근 3년간('11~'13) 연간 직수출액이 2천만불~1억불 구간을 1회 이상 경험한 ② 중소·중견기업	* 68개 - 중소 : 38개 - 중견 : 30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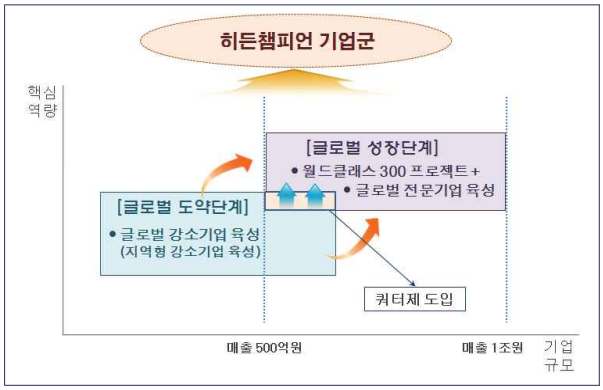
○ 개별 운영되던 각 사업을 글로벌 역량에 따라 **2단계*로 재편**하고,

* ① 글로벌 도약 → ② 글로벌 성장

○ 성장단계별 **연속적 지원**이 가능하도록 **'쿼터제도*'도 신설**할 예정

* 1단계 우수기업에 대해 2단계 연계 지원

통합 지원체계 구축 (안)



□ **사업별 신청자격**도 한국형 **히든챔피언 핵심 개념**과 연계하여 **수출비중, 연구개발 비중**을 공통 자격요건으로 반영

구 분		① 글로벌 도약단계 (글로벌강소, 지역형 강소)	② 글로벌 성장단계 (월드클래스300, 글로벌전문)
신청자격	매 출	• **100억원~1천억원** 중소기업	• **400억원~1조원** 중소·중견
	수 출	• 매출액 대비 **10%** 이상	• 매출액 대비 **10%** 이상
	R&D	• 매출액 대비 **1%** 이상	• 매출액 대비 **1%** 이상

3.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기반 확충

□ 독일처럼 **전문적 틈새시장**에서 **압도적 시장경쟁력**을 갖기 위해서는 **핵심제품 위주의 '한우물 파기'형 연구개발** 지원이 중요

□ 내년부터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 R&D 사업을 2단계**(글로벌 도약→글로벌 성장)**로 나누어 핵심제품 중심의 기술혁신을 집중 지원**할 계획임

① **(지원 체계)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R&D를 도입**하고, 월드클래스 300 R&D와 함께 단계별로 **지원내용**(R&D 목표, 기간 등)**을 차별화**

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R&D 지원체계(안)

구 분		글로벌 도약단계 (글로벌 강소기업 R&D)	글로벌 성장단계 (월드클래스300 R&D)
지원체계	R&D성격	• **단기 상용화** 및 제품혁신	• 중장기 **핵심기술** 확보
	개발기간	• **2년 이내** (0.5년 + 1~1.5년)	• **5년 이내** (1년 + 3~4년)
	지원조건	• 총개발비의 **60%이내**에서, **최대 10억원**까지 지원	• 총개발비의 **50%이내**에서, **최대 75억원**까지 지원

② **(R&D기획)**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**1년 이내의 R&D 기획과정**을 **자동 연계**(100% R&D기획) 지원

* 히든챔피언 실태조사('14.10) : R&D 기획 지원 필요성 77.3%

- 산학연 전문가 그룹과 함께 **기업별 R&D 목표 및 기술개발 로드맵**을 구체화하고, 전주기 **지식재산(IP) 전략 수립을 의무화**

③ **(R&D실행)** 중장기과제인 **월드클래스 300 R&D**의 경우, **중간평가 단계에서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'무빙 타겟제*'** 도입

* R&D 수행 중에 변화된 시장환경 및 기술흐름을 반영하여 개발목표 조정

④ **(저변 확대) 지역별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발굴**을 위해 지자체등 지역혁신협의체를 중심으로 R&D와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**"지역형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"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**('15년 100억원)

4.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 촉진

□ **틈새시장**에 집중하는 히든챔피언들은 **좁은 내수시장**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**적극적 글로벌화** 추진

□ 내년부터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2단계(글로벌 도약→글로벌 성장)로 나누어**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, 해외 M&A 지원기반도 확대해 나갈 방침임

① **(지원체계) 수출지원 프로그램 2단계**(글로벌 도약 → 글로벌 성장) **구분**

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수출 지원체계(안)

구 분		글로벌 도약단계 (글로벌 강소기업)	글로벌 성장단계 (월드클래스 300)
지원체계	지원목표	•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	•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
	지원조건	• 최대 3년, 1억원 이내	• 최대 5년, 3.5억원 이내
	지원내용	•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 • 해외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	•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 • 해외 M&A 및 현지 투자 등

② **(역량진단)**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**'글로벌 역량 진단 프로그램**(글로벌 역량진단+수출로드맵 수립)'참여를 **의무화**(100% 역량진단)

- **기업이 제안한 창의적 마케팅 과제**를 선정해 지원하는 **'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' 본격** 도입('15년 100개사)

③ **(수출인프라)** 내년부터 **해외규격 인증**과 관련해 획득비용 이외에 **갱신 비용(1회)까지 추가 지원, 해외인증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**

- 해외 수출인큐베이터를 글로벌 BI로 전환, **독일의 경우** 현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**수출인큐베이터에 R&D 협력 센터 기능 추가**

④ **(해외 M&A) 1.8조원*의 M&A정책펀드**를 활용하여 **독일·일본 등** 우량 기술기업 M&A **집중 지원, '중견기업 M&A 지원센터' 신설**

* 성장전략 M&A펀드('17년 1조원) + 중소·중견기업 Co-Pa펀드('14년 7,900억원)

5. 인재육성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

□ **우수 핵심 인재**는 기업의 **경쟁력을 좌우**하는 **필수요건**으로, **독일 히든챔피언의 인재 양성 비결**을 **적극 벤치마킹**

□ 히든 챔피언 후보기업들의 수요가 큰 기술, 해외마케팅 분야의 **전문인력 양성, 인력 채용 지원, 일학습 병행제 참여를 촉진**하고, **CEO부터 재직인력까지 포괄하는 인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**할 계획임

① **(전문인력) '기업맞춤형 계약학과*'**를 통해, 중소·중견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**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과 전문연구요원 복무 동시 지원**

* 기업과 정부가 석사과정 지원(2년)→ 석사취득 후 해당기업에서 3년간 의무복무

-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('14년 24개 대학 760명),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('14년 305명)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해외마케팅 인력 충원

② **(매칭강화) 「한국 히든챔피언 채용박람회」** 개최,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과 지역대학·마이스터고간 **"1社-1校" 업무협약* 체결** 확산

* (히든챔피언 기업) 지역 우수인재 채용 ↔ (학교)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

- 잡코리아 등 **민간 취업포탈 서비스와 연계**하여, **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의 경쟁력 및 재직조건 등을 제공**하는 **채용정보관 운영**

③ **(장기재직)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'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*'**가입 확대, **'중견기업 전용 희망적금**'** 추진

* 근로자와 중소기업 공동 적립(인력 : 기업 = 1 : 2이상), 5년간 재직시 적립금 지급('14.8~)

** 핵심기술인력 장기근속 적금인 '희망엔지니어 적금→ 중견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적금으로 개편

④ **(직업교육)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**('14년 1,300개)을 **'17년까지 1만개로 확대**, 스위스식 도제수업이 가능한 **한국형 직업학교 시범도입**('15년 3교)

- **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의 인재양성 수요를 반영**하여 CEO부터 재직인력까지 포괄하는 **'인재 교육훈련 프로그램*' 개발** 추진

* (예시) CEO 인재경영 아카데미, 인재경영 로드맵 수립, 연합채용·훈련 등

6.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인프라 구축

□ 그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히든챔피언 육성을 추진하면서 **수요기업 혼선과 재정집행 비효율이 우려**됐던 상황

□ 내년부터 국내 히든챔피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**민관 합동의 "정책 컨트롤타워"를 확립**하고, **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을 발굴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롤 모델로 제시**할 계획임

① **(컨트롤타워)** 국내 히든챔피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**「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협의체」** 구성·운영,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연계지원 강화

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협의체 구성 (안)

정 부 (6)	중기청, 산업부, 미래부, 고용부, 교육부, 금융위
유관기관 (7)	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산업은행, 한국거래소, 산업기술진흥원
업 계 (4)	무역협회, 대한상의, 중소기업중앙회, 중견기업연합회

② **(성공경험 확산)**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**체계적으로 발굴·관리**하고, **성공 노하우도 적극 전수**

- 매년 **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충족**하는 기업을 **추천·검증**하여 **히든챔피언 확인서 부여**

① 신청 및 추천	② 민관 공동검증	③ 확정·확인서 수여
기업·협의체 참여기관	중기청·무역협회 등	협의체

- 히든챔피언 성공노하우 사례집 발간, **히든챔피언 정책포럼*** 개최

* 히든챔피언과 월드클래스 300 등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간의 교류·소통기회 제공

- **히든챔피언 확인기업 중**에서 **성과가 탁월한 기업**을 선별하여, **포상 실시 및 '명예의 전당' 설립·헌액 추진**

향후계획 및 기대효과

□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을 '14년 기준 634개에서 '17년까지 1,150개**로 대폭 늘리고,

○ 63개로 추정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을 **'17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**고 밝혔음

□ 한 청장은 "한국형 히든챔피언을 발굴하고 후보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, **글로벌 30-50클럽*의 위상에 맞는 국가대표급 중소·중견기업들이 다양하게 배출되길 기대**"한다고 언급하고,

* 1인당 GNI 3만불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경제대국을 의미, 우리나라는 미국·독일 등에 이어 '15년중 세계 7번째로 가입 예상

○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과 후보기업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역할과 함께 **중소·중견기업들에게 기업 성장사다리의 최상위 성장 롤 모델이 되어주길 당부**하였음

<참 고> 한국형 히든챔피언 주요 사례

<별 첨>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. 끝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이철희 사무관(☎ 042-481-68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한국형 히든챔피언 주요 사례**

1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 기업

이노와이어리스 ('00, 중소)	◈ LTE SmallCell ◈ 세계 1위 ◈ 세계 최초, 최대 규모 LTE SmallCell 상용화 ◈ 매출 792억원, 고용 263명 수출 516억원 ('13) ◈ 3년 평균 R&D비중 : 15.8%
제이브이엠 ('77, 중소)	◈ 병원자동화 시스템/SW 개발 및 생산 ◈ 세계 1위 (북미 75%, 유럽 70%) ◈ 세계 최초 전자동 약품관리시스템 (INTIPharm) 개발 ◈ 매출 816억원, 고용 337명 수출 402억원 ('13) ◈ 3년 평균 R&D비중 : 8.4%

2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성공기업

아모텍 ('87, 중견)	◈ EMC 부품 ◈ 세계 1위 (점유율 32%) ◈ 품질 및 원가경쟁력 확보 ◈ 매출 2,480억원, 고용 1,120명 수출 1,762억원 ('13) ◈ 3년 평균 수출비중 : 73.9%
엘엠에스 ('99, 중소)	◈ 중소형 프리즘시트 ◈ 기술 및 원가경쟁력 확보 ◈ 매출 1,117억원, 고용 346명 수출 892억원 ('13) ◈ 3년 평균 수출비중 : 77.5%

3 일자리 창출 역량 우수 기업

와이지-원 ('81, 중견)	◈ 기계부품 정밀가공 절삭공구 ◈ 세계 1위 (점유율 14%) ◈ 높은 해외 인지도와 생산력 ◈ 매출 2,806억원, 고용 1,358명 수출 2,109억원 ('13) ◈ 3년 평균 고용증가율 : 15.1%
이오테크닉스 ('89, 중견)	◈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 ◈ 세계 1위 (점유율 58%) ◈ 독보적 레이저 기술로 제품혁신 ◈ 매출 2,322억원, 고용 510명 수출 1,001억원 ('13) ◈ 3년 평균 고용증가율 : 7.9%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과 이순배 서기관(☎ 042-481-6811), 기업혁신지원과 이철희 사무관(☎ 042-481-68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